



I. 우리나라 술의 역사

1. 술의 어원
2. 술과 문화
3. 한국의 전통술

II. 주류산업의 발전과 주류정책 변화

1. 근대 이전
2. 일제시대
3. 해방 이후
4. 1960년대의 주류산업
5. 1970년대의 주류산업
6. 1980-85년대의 주류산업
7. 1986-90년대의 주류산업
8. 2000년 이후 최근의 주류산업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과 변화

I 우리나라 술의 역사

1. 술의 어원

술의 본래 말은 '수불/수불'이었다. 고려시대의 「계림유사(鷄林類事)」에는 화자(酉禾字),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에는 '수본(數本)'으로 되어 있고 조선시대 문헌에는 '수울' 또는 '수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 '수불'이 '수울'을 거쳐서 현재의 '술'로 변한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술의 한자적 기원을 보면, 주(酒)자의 옛 글자는 '닭, 서쪽, 익을'을 뜻하는 유(酉)자이다. 유자는 밀이 뾰족한 향아리 상형문자에서 변천된 것으로 술의 침전물을 모으기 위해서 끝이 뾰족한 향아리에서 발효시켰던 것에서 유래했다. 그후 유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되어 삼수변이 붙게 된 것인데, 옛 글자에는 삼수변이 오른쪽에 붙어 있다. 보통 삼수변의 글자는 자전에서 찾을 때 수지부(水之部)를 보게 되지만, 주(酒)자는 유지부(酉之部)에 들어 있다. 酉는 '지 유', '익을 유'로 읽히는데, 원래 술향아리를 상형한 것으로 술을 뜻한다.

오늘날에는 술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자가 들어 있는 글자들 중에는 애초에 술과 관련되었던 글자가 많다. 술을 뜻하는 유(酉)가 변으로 들어간 모든 한자는 발효에 관한 광범위한 식품명이다. 취(醉), 작(酌), 레(醜), 순(醇), 작(醋), 장(醬) 등이 그 예이다.

2. 술과 문화

한국의 술문화는 역사가 매우 깊다.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인 마한(馬韓)시대부터 한 해의 풍성한 수확과 복을 기원하며 맑은 곡주를 빚어 조상께 먼저 바치고 춤과 노래와 술마시기를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한국에서는 농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술을 빚어 마셨고 모든 행사에는 술이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朱蒙)의 건국 전설에도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가 능신 연못가에서 하백의 세 딸을 취하려 할 때, 미리 술을 마련해 놓고 먹여 취하게 한 다음 수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세 처녀 중의 큰딸인 유희(柳花)와 인연을 맺어 주몽을 낳았다는 것이다. 또한 「위지(魏志)」 「고구려전」에 「선장양(善藏釀)」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고구려에서 술을 비롯한 발효제품이 많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당나라 풍류객들 사이에는 신라주가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 발효의 바탕은 누룩이었다. 누룩으로 술을 빚는 방법은 일본에도 전해져 일본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삼국시대의 술은 발효원인 주곡(酒麴)과 맥아(麥芽)로 빚어지는 주(酒)와 맥아로만 빚어지는례(醴, 감주)의 두 가지였다. 이 가운데 내외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술은 '고려주'와 '신라주'이다. 이 술들은 중국 송나라에 알려져 문인들의 찬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삼국시대에 나라 이름을 앞세운 술이 있었던 데 비해서, 고려시대에는 황금주(黃金酒), 백자주(栢子酒), 송주(松酒) 등 술의 재료와 특성을 나타내는 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름은 조선시대 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한다. 더구나 고려시대에는 증류주가 유입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술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고려시대에는 송나라와 원나라의 양조법이 도입되었고, 전래의 주류양조법이 발전되어 누룩의 종류나 주류제품이 다양해졌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문종 때 왕이 마시는 술은 양온서를 두어 빚었는데, 청주와 법주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질항아리에 넣고 명주로 봉하여 저장했다고 한다.

조선시대는 현재까지 유명주로 꼽히는 술이 정착한 시대이다. 이 시기에 술은 고급화 추세를 보여 제조원료도 멍쌀에서 찹쌀로 바뀌고 발효기술도 단(單)담금에서 중양법(重釀法)으로 바뀌었다. 이때 명주로 꼽힌 것이 삼해주(三支酒), 이화주(梨花酒), 부의주(浮蟻酒), 하향주(河香酒), 춘주(春酒), 국화주 등이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지방주가 전성기를 맞았다. 지방마다 비전(秘傳)되는 술들이 맛과 멋을 내면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에는 서울의 약산춘(藥山春), 여산의 호산춘(壺山春), 충청의 노산춘(魯山春), 평안의 벽향주(碧香酒), 김천의 청명주(淸明酒) 등이 명주로 손꼽혔다. 조선시대에는 적지 않은 외래주도 공존했다. 천축주(天竺酒), 미인주(美人酒), 황주(黃酒), 섬라주(暹羅酒), 녹두주(綠豆酒), 동양주(東陽酒), 금화주(金華酒), 무술주(茂戌酒), 계명주(鷄鳴酒), 정향주(程香酒) 등이 이 시기에 유입된 외래주이다.

3. 한국의 전통술

한국의 전통술은 탁주, 약주, 소주로 대표된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조방법으로 볼 때 탁주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탁주에서 재(滓)를 제거하여 약주가 되었으며, 이를 증류하여 소주가 만들어졌다.

1) 탁주

오늘날에도 널리 애용되고 있는 막걸리인 탁주는 약주와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토속주이다. 탁주는 예로부터 자가제조로 애용되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그맛도 다양하였다. 탁주는 지방방언으로 대포, 모주, 왕대포, 젓내기 술(논산), 탁배기(제주), 탁주배기(부산), 탁주경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삼국시대 이래 양조기술의 발달로 약주가 등장했지만, 탁주와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았다. 같은 원료를 사용해서 탁하게 빚을 수도 있고 맑게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이래로 대표적인 탁주는 이화주(梨花酒)였다. 이 이름은 탁주용 누룩을 배꽃이 필 무렵에 만든 데에서 유래했으나 후세에 와서는 어느 때나 누룩을 만들었으므로 그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다.

탁주와 약주는 곡류와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로나 전분당, 국 및 물을 원료로 한다. 여기에서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탁주와 약주로 구분된다.

2) 약주

약주는 탁주의 숙성이 거의 끝날 때쯤, 술독 위에 맑게 뜨는 액체 속에 싸리나 대오리로 등글고 깊게 통같이 만든 '용수'를 박아 맑은 액체만 떠낸 것이다.

약주란 원래 중국에서는 약으로 쓰이는 술이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주라는 뜻이 아니다. 한국에서 약주라 불리게 된 것은 조선시대 학자 서유거(徐有集)가 좋은 술을 빚었는데 그의 호가 약봉(藥峰)이고, 그가 약현동(藥峴洞)에 살았다 하여 '약봉이 만든 술', '약현에서 만든 술'이라는 의미에서 약주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약주에 속하는 술로는 백하주, 향은주, 하향주, 소곡주, 부의주, 청명주, 감향주, 절주, 방문주, 석탄주, 범주 등이 있다. 이밖에 보다 섬세한 방법으로 여러 번 덧술한 약주에 호산춘, 약산춘 등이 있는데, '춘(春)'자를 붙인 것은 중국 당나라 때의 예를 본뜬 것이다. 그리고 비록 '춘'자는 붙지 않았어도 같은 종류의 술로 삼해주, 백일주, 사미주 등이 있다.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과 변화

3) 청주

청주는 백미로 만드는 양조주로서 탁주와 비교하여 맑은 술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청주는 음료로서 사용되지만, 육류와 생선요리 등 각종 요리에 조미용으로도 사용된다.

청주는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진 한국의 술이다. 일본 「고사기(古事記)」에는 백제의 인번(仁飧)이 응신천황(應神天皇, 270-312년) 때 일본에 건너와 새로운 방법으로 미주(美酒)를 빚었으므로 그를 주신(酒神)으로 모셨다고 전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주는 청주의 전신인 듯하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의 시(詩)에서는 “발효된 술덧을 압착하여 맑은 청주를 얻는데 겨우 4-5병을 얻을 뿐이다”라고 했고, 「고려도경」에서도 “왕이 마시는 술은 양은서에서 다스리는데 청주와 법주의 두 가지가 있으며 질항아리에 넣어 명주로 봉해서 저장해 둔다”라고 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에는 발효된 술덧을 압착하거나 걸러내어 맑은 술을 빚었고, 이미 덧술법을 사용하여 알코올 농도가 높은 청주를 빚은 듯하다. 즉 발효가 끝난 술덧을 잘 걸러내어 부드럽게 마실 수 있게 맑게 한 술이 청주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식 청주가 만들어진 것은 1900년 이후이다.

4) 소주

소주는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일반 양조주의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 고안된 술로서 발효원액을 증류하여 얻는 술이다. 소주는 인도나 이집트 등지에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나 2,800년 전부터 만들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국내문헌에 의하면, 600년 전 중국 원나라 때 처음 생산되었다. 이때는 감로(甘露), 아라키(亞刺吉)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술을 만주에서는 이얼키(兪兒吉)라고 하고 아라비아에서는 아라크(Araq)라고 했다. 아라키라는 이름은 아라비아의 아라크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주는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가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한 후 몽고인의 대본당이었던 개성과 전진기지가 있던 안동, 제주도 등지에서 많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원나라가 고려와 함께 일본을 정벌할 때 안동을 병참기지로 만들면서 안동소주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안동소주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발전했다.

당시 원나라는 페르시아의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세력이 중국은 물론 한반도에도 미쳤다. 원의 이러한 세력확장에 따라 페르시아 증류법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다. 한반도에 들어온 소주는 지역마다 명칭을 달리했다. 개성에서는 ‘아라주’라고 했고, 평북지방에서는 ‘아랑주’라고 했다. 경북과 전남, 충북 일부에서는 ‘새주’, ‘세주’라고 했다. 진주에서는 ‘쇠주’, 하동과 목포, 서귀포 등지에서는 ‘아랑주’, 연천에서는 ‘아래지’, 순천과 해남에서는 ‘효주’라고 불리었다.

고려시대 중국에서 전래된 소주는 오랫동안 약용으로 음용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야 '술'로서 일반인들이 마시게 되었으며 '약소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반도에서는 평양에서 만든 '감홍로(甘紅露)'가 최초의 소주이고, '재소주' (두 번 증류하여 강도가 높은 소주)는 태국으로부터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5) 가향주(加香酒)

술에 독특한 향을 주기 위해서 꽃이나 식물의 잎 등을 넣어 만든 술이다. 진달래꽃을 쓰는 두견주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화주(花酒)가 있는데, 빚는 방법으로는 일반 처방에다 가향재료를 넣어 함께 빚는 것과 이미 만들어진 곡주에 가향재료를 우러나게 하여 빚는 가향 입주법이 있다.

II. 주류산업의 발전과 주류정책 변화

1. 근대 이전

근대 이전에는 아직 주류산업이 독자적인 산업분야로 분류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의 주류정책도 주류의 판매보다는 주류의 생산이나 소비행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근대 이전에 주류가 일반민중의 마실거리로 등장한 시기는 조선시대였다. 전래의 약주와 탁주문화에 고려시대 말에 소주가 유입되면서 주류의 다양화와 함께 음주충도 확산된 것이다. 특히 증류주인 소주는 유입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유행하면서 음주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근대시대에는 곡물을 자급자족했기 때문에 지나친 양조는 국가의 식량수급에 저해가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금주령을 내려 주류생산을 조절했다. 1375년 최초로 소주금주령이 내려진 이후 금주령은 자주 내려졌다.

고려시대에 주류 제조처로서 대표적인 곳은 사찰이었다. 사찰에서는 술을 빚어 일반에 팔았는데 그 수입이 매우 많았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의 숙박업과 양조업이 묵인되었으나 정도가 지나치자 현종 원년(1010년)에는 양조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조선 중엽까지는 주모가 자기 집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술을 파는 주점과 내외주점(内外酒店)이 있었다. 그러나 영조시대(18세기)부터 술집은 규모도 커지고 모습도 달라졌다. 내외주점에서 기녀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외주점은 색주가로 변하게 되었다.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과 변화

2. 일제시대

1909년 2월(융희 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주세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주세법의 주요 골자는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주류제조면허제를 시행하고, 주류제조장의 제조석수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며, 민가의 자가용 주류에도 과세한 것이다. 또한 주류를 주정 함유량과 제조방법에 따라 양성주(탁주, 약주, 청주, 백주, 과하주 등), 증류주(소주, 기타 증류 제성한 주류), 혼성주(양성주, 증류주에 다른 물료를 혼합제성한 주류 등)로 분류했다.

그후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재정 독립계획에 입각하여 본격적으로 식민지 경제수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주세령'이다. 조선총독부는 주세 증수를 통한 세수 확대를 목표로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 제정된 주세법의 세율을 약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1916년 주세령을 공포했다. 이후 일제는 다섯 차례에 걸쳐 주세령을 개정하여 주세율 인상을 단행했고 이를 국고 수수에 충당했다.

주세를 통한 일제의 경제침략은 주세령이 공포된 1916년부터 대륙침략이 본격화한 1933년까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기간 동안 주세징수 액수는 무려 13배라는 매우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당시 주류제조업은 제조업체 수에서 단연 선두를 차지했다. 1930년 771개소의 제조업체 가운데 음식공업체의 수는 237개(35.3%)로 으뜸을 차지했고, 자본금에서도 592만6,000원(33%)으로 화학공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자본구성(530만원)면에서는 8.8%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이는 1930년 당시 주류제조업이 아직 근대적인 산업으로서 자리잡지 못했음을 나타내 준다.

일제하에 한인 주조회사의 경영자들은 대부분 지방유지 또는 민간 유력자들로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으며 지식계층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제하에서 주조업에 참여했던 경영층의 대부분은 광복 후에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었다. 이것은 일제의 패망과 조국 광복이라는 정세의 변화 때문이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주조업이 전통을 기반으로 면면히 계승될 만큼 기업으로서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자신이 주조업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나 경영철학이 없었던 점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3.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은 극도의 정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술빈곤과 시설의 노후, 자금난, 원료난, 식량난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주류산업은 쉽사리 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주류산업의 상황도 과도기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복 5년째가 되는 1949년 말까지도 61%나 되는 공장들이 관리인 경영형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당시 주류산업의 과도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공장의 창업 주체가 자수성업이 아닌 중도 참여자의 단순관리적 성격이라는 점은 노사간의 화합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류산업 전반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8·15 광복 이후의 어려운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주정생산은 계속되었다. 해방 당시에 국내 주정생산능력은 7만5,000석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 전반에 걸친 혼돈이 계속되고 기술자의 절대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 경영 주체의 관리역량 한계와 주세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1946년에 330석, 1947년에는 900석의 주정을 생산하는데 머물렀다.

1) 미군정기의 주류정책

미군정은 1945년 11월 2일자로 포고령 제21호를 공포하여 일제가 제정한 주세령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한편, 일제시대의 주조업조합법에 의거한 군조합, 도지부조합, 주류업조합중앙회 등의 주조단체를 부활시켰다. 그후 과도정부는 과점령 제154호로 주세령과 청량음료세령을 통합한 음료세령을 공포했다.

당국은 세율을 높여 과중한 세금증수를 통해 범람하는 음료업자들의 자발적 폐업을 유도하면서 미곡 사용 양조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주조업은 계속해서 침체와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주정공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미군정은 동력원료 확보책으로 주정증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공부 공업국 연료과 주도로 전국 9개 도에 각각 1개의 주정공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했는데, 이것은 주정공업이 일반 주조업과 달리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활력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군정기의 주세정책은 일제의 유산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것이었으며 한마디로 무정책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수립후의 주류정책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양곡확보를 위하여 주류제조억제정책을 시행했다. 정부수립기에 식품공업에서 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매우 컸지만, 생산규모 면에서는 일제시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주조억제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양곡의 미곡사용 금지시책은 상대적으로 잡곡류를 주원료로 하는 주정의 효용가치를 높였다. 그것은 주정생산량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1948년 주정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400%의 증가율을 보였고, 1949년에는 1/4분기의 생산량만으로도 1947년의 생산량을 능가했다. 이 무렵 신규 주정공장들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1949년을 전후하여 일제의 유산으로 남겨진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과 변화

주정공장들은 순수하게 민간의 손으로 설립된 신규 공장들과 함께 본격적인 민족산업으로 재기하기 시작했다.

3) 1950년대의 주류산업

한국전쟁 시기에 주조업체는 술이라는 이름만 붙여도 팔릴 정도로 공급이 달렸다. 전쟁과 피난살이의 고달픔을 씻어주는 데에는 역시 술이 최고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주류제조공장이 큰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주류생산은 주유소비의 증가를 만족시켜줄 정도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1953년 휴전 이후 주류제조공장들이 복구하여 안정을 되찾으면서 해소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생산된 주류의 종류는 다양하지 못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주종별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전쟁 중의 사회-경제적 혼란과 국민생활 상태등을 반영하여 비교적 값이 싼 탁주와 소주 등에 소비가 편중되어 있었다. 시기가 지나면서 출고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역시 1950년대에 가장 많은 출고량을 보인 주종은 막걸리로 불리었던 탁주였다. 이 시기에는 주정원료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51년부터 정책적으로 당밀(糖蜜)수입을 추진했다. 이러한 주정원료 확보책에도 불구하고 1957년에는 원료난이 심각하여 중소 규모의 주정공장이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입당밀의 단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는 수입당밀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당밀 전용기' 라고도 했다.

한국전쟁을 치르고 전후복구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던 1950년대에 정부는 주류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었다. 늘어나는 주류소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정원료를 충당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다. 또한 주류생산과 유통과정도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웠던 시기였다. 당시의 조세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주류업은 세수의 대상으로만 인식될 정도였다. 그 결과 1950년대에는 밀조주와 부정외래주, 불량주류가 범람했다. 당시 시중에는 미군부대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변성알코올로 만든 불량주류가 범람했는데 이 술에는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국민보건에 큰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여기에는 원료의 원활한 수급과 기업자금의 용자와 같은 주류육성의 육성책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증과세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50년대의 주세법은 징세를 기본목표로 하고 소비자 보호, 주류업계의 지도육성, 세원의 포착·확대, 양곡 및 농가소득 증대 등 기타 정책지원, 집행기관에 대한 일정한 기능 부여와 주류업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원의 포착과 확대이다. 1950년 4월 28일 제1차 개정을 거쳐 주세를 증정한 정부는 1953년 5월의 2차 개정과 이듬해 3월 제3차 개정, 1954년 10월의 제4차 개정, 1956년 12월의 제5차 개정을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했다. 특히 3차개정에서는 주세가 대폭 인상되어 부작용이 빚

어지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출고수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과세법을 적용했다.

4. 1960년대의 주류산업

1) 주류산업의 실태

1950년대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던 소주는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1964년에는 정부의 고구마 소비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재래식 소주제조에 잡곡사용을 일체 금지함에 따라 소주의 출고량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던 탁주의 출고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경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이 서민대중에게 탁주는 가장 사랑 받는 술이었던 것이다. 또한 약주와 청주의 출고량이 감소한 데 이어 맥주는 증감을 거듭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1960년대는 가중되는 외화난을 극복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구마를 주정 원료로 전용하는 정책이 강력히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주정생산이 급격히 감소한 시기였다. 국가시책으로 시행된 고구마증산시책에도 불구하고 주정원료 수요를 국산 고구마만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1965년에는 다시 수입당밀을 주정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고구마증산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어 주정생산량 증가에 기여했다. 정부는 1966년부터 주정원료 확보와 공정한 배분을 위해 공동판매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주정원료확보정책으로 인해 1965년도부터 주정생산량은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2) 주류정책

이 시기의 주류정책은 주류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주류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유통구조와 주세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 즉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주류업계가 원활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세조사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세납부체제를 수립했다.

조사행정체계

우리나라에서 조사관계규정은 1961년 12월에 제정된 '주류사무취급통칙'이 그 효시이다. 그후 많은 제반 관계규정들이 통폐합되었다. 주세조사업무는 1961년 제정시부터 부과납부체도를 채택하여 검사장부에 의한 정기검사 위주로 운영되었다.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과 변화

훈령 및 지정사항

국세청은 동일주류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적용과 행정간소화를 기하고자 1969년 3월 '국세행정 및 지정사항'을 재정비하여 주류별로 분류 정리했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에서는 이후에 발행되는 명령과 및 개폐사항을 추가로 기입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명령 및 지정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납세표식제도

이 제도는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검사 단속상의 편의를 위한 대중감시수단으로 고안된 제도인데 1966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납세증지를 사용했다. 국세청이 발족하기 이전의 납세증지는 청주를 비롯한 4개 주류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1966년 4월 기존 주류를 포함하여 7개 주류에 대해 첩부하도록 한데 이어 그해 5월에는 2개 주류를 추가했다.

주류가격규제

정부는 주류제조사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류가격을 규제했다. 주류가격의 결정은 물가안정과 주조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류가격제도를 마련하여 제조자의 재고가격에 대하여 규제할 뿐만 아니라, 도소매가격이나 마진율을 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5. 1970년대의 주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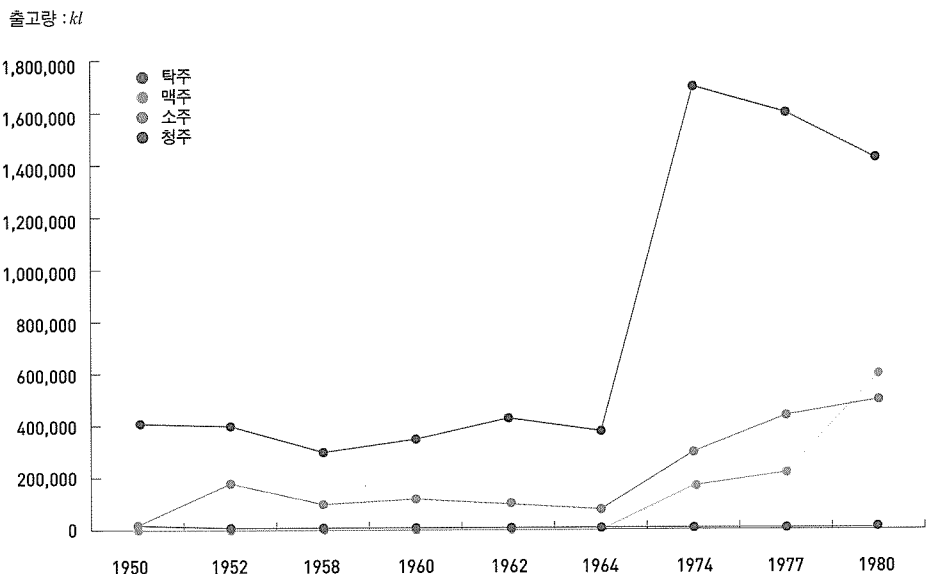
1) 주류산업의 실태

1970년대에는 모든 종류의 주류가 소비증가율을 보였다. 고도성장기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소비가 촉진되는 가운데 주류도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서민대중이 즐겨 마신 술은 막걸리나 소주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맥주의 소비량이 급증했지만, 저가격 주류의 소비가 여전히 대세를 이루었다.

주정원료의 확보 없이는 주류생산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주류소비의 증가는 곧바로 주정원료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전 시기부터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주정원료 품귀현상은 197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1973년부터는 '주정파동'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품귀현상을 보였다.

정부는 1974년부터 주정원료 다변화정책을 펼치기로 하고 타피오카칩을 대체원료로 공급하는 한편, 1970년대 말부터는 조주정을 수입하여 주정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수입 조주정은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증류시설만 갖추면 대량의 양질 주정을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주정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그림1〉 1950~70년대 주류출고량 변화



- * 이시기에 대중이 주로 마신 주류는 탁주와 소주임
- * 탁주는 60년대 중반 급격히 증가하여 70년대 초까지 출고량 이증가하였으나 70년대 중반이후 쇠퇴하는 경향을 보임
- * 소주는 탁주와 함께 즐겨마시는 술로 6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 맥주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함

2) 주류정책

정부는 1970년대에 들어와 주류산업 발전과 주류행정체계의 확립이라는 이전 시기의 주류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주류면허행정의 실시를 통해 주류행정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류산업정책을 통해 비로소 지방산업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과 변화

조사행정체계

이 시기 주세조사업무도 주류제조장 검사, 주세법칙조사, 부정주류 단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70년대 중반까지 주로 정기검사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1977년부터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자 종전의 정기검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계획에 의해 수시로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업무 관할을 정했다. 그 결과 제조장 점검, 법칙조사, 부정주류 단속업무는 지방국세청 이상에서 실시하고 세무서에서는 조사 및 기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상의 조사관계규정은 1983년 주세사무처리규정으로 흡수되었다.

납세표식제도

1960년대에 9개 주류에 사용하던 납세증지제도는 1970년 3월 탁약주, 주정, 맥주를 제외한 전주류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3년부터 병입주류가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납세증지는 사실상 납세병마개 사용이 불가능한 주류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

주세정책

정부는 1972년부터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에 대하여 종가세를 적용했다. 종가세 위주의 주세부과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세보전에 확실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류 제조가격이 상승될 때 주세액도 상승하므로 소비자 부담이 늘게된다.

주류행정면허

주류면허행정은 제조업체의 난립을 막고 주류의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주류면허를 통폐합하여 주류의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류산업정책

주류산업정책은 업체의 체질개선과 경영합리화·유도라는 목적과 함께 해당 제조업체가 소재한 지방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두 가지 목적 아래 추진되었다. 지방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73년 지방 군소 주류업체를 통폐합했다. 통폐합의 목적은 군소 주류업체의 과당경쟁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류의 주질 저하를 막고 이들을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1976년에는 일부 업체의 시장 독점화를 방지하고 지방 소주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자도주(自道酒) 50% 의무구매제를 실시했다.

6. 1980~85년대의 주류산업

1) 주류산업의 실태

이시기 주류산업은 80~82년 3년동안 수요가 감소를 보였으나 83년부터 거의 모든 주종에서 큰 신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85년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부진을 보였다.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81년에는 소주의 자도주의무구입제 완화로 업계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자도주의무구입제 완화는 소주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주종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경쟁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속에서도 82년까지 주류산업의 불황은 지속되었다. 주목할 것은 맥주가 대중주로 정착하고 소주와 함께 탁주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 출현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청주와 고량주는 대폭 위축되었다.

83년도 들어 급속한 경제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주류산업도 활발한 생산을 보였다. 주류산업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맥주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졌다. 맥주의 높은 성장세는 호경기와 소비층의 저변확대에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84년도에는 계속된 경제안정과 국민소득 향상에 힘입어 대부분의 주종이 큰 폭의 신장을 보였고, 주류의 고급화에 따라 고급주를 둘러싼 시장각축전이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85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민간소비지출 증가세는 현격히 둔화되었다. 주류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맥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2) 주류정책

이시기의 주류정책은 주류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주류업계가 국내에서 육성됨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류산업정책을 전개하고 아울러 공정거래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정거래정책은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1981년도 공정거래법이 시행되자 각종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주류산업에 있어서도 주세법과의 법적용 우선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었다.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과 변화

7. 1986~90년대의 주류산업

1986년 이후 국내 주류산업은 개방화의 진전과 경제성장의 회복정도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80년대 들어 가장 높은 1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자 소주, 맥주, 청주 등이 소폭이나마 신장세를 보였다. 이해에는 탁주의 소비감소가 뚜렷이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주정수입이 감소한 반면에 위스키, 브랜디의 수입은 저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주류선호의 고급화 추세가 계속되자 업계는 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에 힘쓰게 되었다.

87년도에 들어서며 대통령 선거와 총선 및 올림픽 등 특수요인 및 전반적인 경기호조에 힘입어 주류시장은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맥주소비량이 전년대비 9.6%의 증가율을 보이며 대중주로서 완전히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인 88년에는 맥주 소비량이 19.2% 증가하여 1980년대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다.

89년도에는 3저 호황의 종식에 따른 경제침체로 전반적인 주류소비의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위스키, 청주, 맥주 등 고급주와 저도주의 신장세가 지속되어 주류시장 판도의 재편이 가속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 주류업계는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주류소비량이 4.9% 증가했으나 국내산업 전반에 걸친 불황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이 시기 주류소비는 식생활의 패턴 변화와 함께 고급주와 저알콜주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저도주 소비가 20.9% 증가하여 호황을 나타낸 반면, 서민들이 애용하던 막걸리, 소주 등은 고급주에 밀려 고전했다. 또한 수입주가 늘어나면서 국내 포도주를 포함한 과실주는 5.4% 감소했다.

92년도의 경우에는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거의 모든 주류의 소비량이 감소했다. 이와 같은 판매량 감소는 주류업계의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나 소주의 판매증가 추세는 계속되어 4.7%의 성장을 나타내었다. 이는 1993년으로 예정된 소주면허의 전면개방에 자극을 받은 기존사의 기술개발과 잇따른 신제품 출시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93년도를 기점으로 국내 주류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맞게 되었다. 동양맥주가 경월소주를 인수하여 진로와의 경쟁에 돌입했고, 진로는 미국 쿠퍼스사와 합작하여 '카스'라는 브랜드로 맥주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맥주와 소주시장에서 격돌이 예상되었다. 여기에 군소 지방 소주업체들도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고급 신제품의 잇따른 출시, 경기회복, 치열한 마케팅 등으로 주류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대부분의 주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94년도에는 특히 주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95년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전반적인 주류소비형태가 고급주 선호경향을 보였다. 맥주, 소주가 전체 주류 중 87%의 물량을 차지하여 대중주의 위치를 굳힌 반면, 탁주는 쇠퇴했고 여러 가

지 새로운 주종이 등장하여 주류시장이 더욱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96년 이후 경제 불황이 주류업계에도 반영되어 총 주류소비량이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특히 맥주 소비량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맥주수요에 비하여 공급설비가 과잉됨으로써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면 맥주수요는 줄어 들고 소주소비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소주는 5.3%라는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고급주의 대명사인 위스키는 1980년대 중반부터 계속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6%의 증가를 기록함으로써 고급주 선호경향을 반영했다.

97년 이후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위스키 주세인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등 국내 주류산업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 시작된 업계의 과잉설비투자는 1997년 말 당시 업계의 공장가동률을 맥주 60%선, 고주 70%선으로 떨어트렸다. 경제불황의 지속은 소비자들의 구매경향도 바꾸었다. 전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던 위스키가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으며, 맥주는 3%, 청주는 6%의 소비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소주는 6% 증가했다. 그러나 프리미엄급 소주는 쇠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격이 저렴한 일반소주와 알코올도수를 낮춘 저도주가 소비를 주도했다.

8. 2000년 이후 최근의 주류산업

2000년 이후 국내 주류산업은 외형적 성장과 함께 많은 변화의 흐름속에 있는 상황이다. 99년 한-EU 주세협상에서 패소함에 따라 2000년부터 세율이 조정되어 증류주의 세율이 72%로 동일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2000년도에 소주는 14%의 큰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반면 위스키는 50%의 큰폭의 성장을 보였다.

수출과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평균 8~10%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품목으로는 소주, 맥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으로는 위스키, 와인, 꼬냑, 맥주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웰빙바람으로 건강,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류소비형태도 다양화, 세분화, 저도화 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소주, 맥주, 위스키 외에 약주, 과일주, 전통주 등 저도주의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소주의 경우 저도화의 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20도까지 알코올도수가 낮아진 상황이다.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과 변화

〈표1〉 희석식소주 알코올도수 변화

| 년도 | 1965 | 1973 | 1999 | 2001 | 2004 | 2006 |
|-------|------|------|------|------|------|----------|
| 알코올도수 | 30 | 25 | 23 | 22 | 21 | 20(20.1) |

〈표2〉 10년간 주류별 출고수량 (1996~2005)

단위:kl

| 구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희석식소주 | 810,279 | 888,632 | 933,386 | 1,078,821 | 931,236 | 1,070,150 | 1,081,826 | 1,134,190 | 1,183,249 | 1,186,064 |
| 증류식소주 | 971 | 441 | 345 | 214 | 121 | 53 | 69 | 90 | 214 | 139 |
| 청주 | 48,632 | 46,470 | 36,875 | 37,844 | 34,983 | 26,633 | 29,333 | 28,160 | 25,305 | 25,748 |
| 일반증류주 | 1,542 | 934 | 689 | 567 | 7,077 | 14,747 | 12,781 | 7,217 | 7,866 | 10,278 |
| 맥주 | | 1,679,719 | 1,417,076 | 1,479,579 | 1,644,343 | 1,777,111 | 1,821,130 | 1,770,689 | 1,789,452 | 1,702,036 |
| 위스키 | 14,096 | 11,717 | 8,425 | 10,473 | 15,748 | 17,340 | 16,979 | 12,447 | 10,573 | 11,167 |
| 브랜디 | 478 | 343 | 214 | 247 | 283 | 341 | 353 | 275 | 299 | 274 |
| 과실주 | 7,672 | 9,691 | 7,071 | 7,982 | 8,875 | 9,960 | 11,549 | 12,820 | 13,148 | 14,485 |
| 리큐르 | 29,173 | 27,518 | 20,243 | 31,363 | 20,883 | 18,033 | 15,516 | 11,424 | 7,026 | 4,874 |
| 약주 | | | | | | | | 16,111 | 27,294 | 23,530 |
| 기타주류 | 1,314 | 1,189 | 949 | 1,211 | 1,531 | 1,741 | 2,113 | 2,263 | 2,461 | 2,699 |

* 기준도수 환산량

〈표3〉 10년간 주류별 출고금액 (1996~2005)

단위:백만원

| 구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희석식소주 | 1,042,299 | 1,183,411 | 1,386,311 | 1,642,135 | 1,678,641 | 1,910,910 | 2,031,660 | 2,253,430 | 2,490,307 | 2,540,914 |
| 증류식소주 | 4,039 | 1,691 | 593 | 431 | 1,474 | 516 | 562 | 682 | 1,172 | 602 |
| 청주 | 149,909 | 157,420 | 145,209 | 152,185 | 141,735 | 110,832 | 110,207 | 110,255 | 102,956 | 109,375 |
| 일반증류주 | 10,202 | 4,876 | 3,624 | 3,072 | 12,501 | 23,479 | 23,363 | 15,261 | 16,228 | 20,615 |
| 맥주 | | 3,020,365 | 2,771,615 | 2,896,196 | 3,097,784 | 3,253,739 | 3,383,100 | 3,466,659 | 3,536,302 | 3,372,420 |
| 위스키 | 408,628 | 392,786 | 389,034 | 506,736 | 590,755 | 746,123 | 740,799 | 534,188 | 472,732 | 505,570 |
| 브랜디 | 5,752 | 4,778 | 3,215 | 4,091 | 5,502 | 6,290 | 8,123 | 7,582 | 9,686 | 8,806 |
| 과실주 | 21,213 | 29,008 | 21,514 | 25,215 | 26,915 | 33,670 | 42,596 | 50,955 | 61,983 | 79,496 |
| 리큐르 | 94,891 | 93,011 | 80,666 | 125,448 | 139,098 | 146,785 | 120,136 | 85,303 | 51,756 | 28,050 |
| 약주 | | | | | | | | 90,667 | 160,268 | 140,566 |
| 기타주류 | 2,634 | 2,985 | 2,626 | 3,387 | 4,482 | 5,054 | 6,132 | 6,557 | 7,114 | 7,730 |

* 약주는 국순당, 두산 2개사 자료(2004년도는 7~12월 통계)